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깊은 곳에서의 기도

(요나 1:17 - 2:1 - 10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탄 길로 가던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지움을 받아 큰 물고기에게 삼김을 받았습다. 적어도 이를 혹은 사흘 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극의 밑바닥에 내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사건은 기적입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물고기 뱃속의 온도는 40-42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열기 속에서 사흘을 견디고 다시 토함을 받은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에는 자칫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부각될 수 있지만 사실 요나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1. 정직한 기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2절).

요나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지적한 죄를 무시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3절).

요나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 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정직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를 택하라고 세 가지를 제시하셨고,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공효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대상 21:13)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공효이 임합니다.

당면한 현실을 정직히 수용하는 것이 요나의 기도의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요나는 하나님의 공효과 도우심의 손길을 맞보게 되었습니다.

2. 참회의 기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8절).

참회의 기도는 고백(confession)하는 기도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쳐온 것에 대해 참회했습니다.

요나는 살려달라거나, 혹은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요나

는 하나님의 선지자 직분을 함부로 버린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잘못했으니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자체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3. 감사의 기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9절).

요나의 감사는 무엇을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요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주를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을 감사한 것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이 관점에서 보면 당시 요나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감사는 주님을 찾게 된 감사였던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4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아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어둠에 쌓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 서원의 기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9절).

비로소 요나에게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요나는 회생과 헌신의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가 아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C. S. Lewis는 그의 저서인 “단순한 기독교인(Mere Christianity)”에서 모든 신자는 교만이 비극의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효이 임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남김없이 회개하고 다시 회생한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이루겠다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던 사람으로 이제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4년도 전도학교 수료자 만남의 날

27일(토) 오후 5시 만나 홀에서

전도위원회 전도부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전도학교를 수료하고 70인전도대원으로 다양한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수료자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기로 했다.

한편, 수료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팀에 소속하지 못한 대원들을 격려하여 수료자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기 위해 3월 27일(토) 오후 5시 만나 홀에서 당회원, 스테반 회원, 교구간사, 남녀전도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수료자들을 초청하여 위로회를 갖는다.

12주 동안 이론과 실습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은 개인 사정과 낮에 일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저마다 목요 축호전도, 수요일노방, 야간전도, 토요일노방, 야간 전도대 그

리고 문서 전도대와 목요 중보 기도팀에서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회 부흥과 전도열기 고조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1기에서 9기까지 전도학교를 수료한 성도들은 장년 142명, 대청부 34명 등 모두 176명에 이른다.

현재 12주로 된 전도학교 과정은 중단 없이 연중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기가 장년 21명, 대청부 15명으로 각각 주일 오후 2시와 토요일 저녁 7시에 1시간 30분씩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모든 수료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섬김목회의 현장을 본다

우리교회는 설립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다. 다른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출발

발을 하였다. 디아코니아(섬김) 목회를 기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4월중에 많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하나원 방문 전도 - 4월10일(토) 오후 4시

탈북난민을 위해 디아스포라부를 설립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오는 4월10일(토) 북한의 공산독재 정권에 희생이 되어 중국 등지에서 방황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탈북난민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이번 전도위문행사는 경기도에 소재한 하나원 분원에 입소한 탈북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도와 위문행사를 갖게 된다. 이날 순서는 찬양과 경건회 그리고 식탁 교제, 친교의 시간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질 예정

이다. 이종윤 담임목사는 이날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전도하게 된다.

또한 이들 탈북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푸짐한 음식과 선물도 함께 준비할 예정이며 바울 남선교회와 루디아 여전도회가 수고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준비되어 많은 생명이 구원 받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육사 세례식 - 4월 3일 (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의 금년도 일정이 확정되었다.

금년 육사 세례식은 4월3일(토) 오후 2시 육사 교회당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이종윤 목사와 담당교역자, 장로, 비전2020 운동본부 위원, 찬양대원들이 참석하여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집행

하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때 앞으로 졸업과 더불어 초급장교로 임관하여 장병들과 함께 진중생활을 시작할 이들이 먼저 세례를 받고 성도의 삶을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제목인 비전 2020의 그날이 속히 다가올 것임에 틀림없다.

·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장병위문 - 4월 25일 (주) 오후 7시 문무대에서

서울교회는 이라크에 파병되는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여 어려운 이라크 국내 사정으로 자칫 사기가 저하되기 쉬운 장병들의 힘을 북돋아주게 된다.

자이툰 부대 위문은 4월25일(주) 저녁 7시에 있는 훈련소 정기 예배 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600여명의 기독 장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후원을 하게 된다.

또한 장병들이 이라크에서 주민 선교를 위해 사용할 구호물품과 장병들이 현지에서 사용할 생활용품도 후원할 예정이다.

우리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자이툰 부대 대원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선교의 사명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제1기 군 입대자 교육

27일(토) 오후 3시 705호 및 101호에서

지난 2월 29일자 순례자를 통하여 군입대 젊은이들을 군 파송 준선교사로 세우기로 한 우리교회는 제1기 군 입대자 교육을 27일(토) 오후 3시, 705호실과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갖기로 하였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2004년 4, 5, 6월 군입대 예정자이며 군생활소개 VTR상영, 군과 신앙생활, 영성훈련 등을 교육받게 된다. 등록 신청은 사무국과 비전2020운동본부로 하면 된다.

여전도회원들 봄맞이 청소하기로

23일(화), 24일(수) 당일간

다음 주일 찬양예배를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되어 여전도 회원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헌신 예배에 앞서 금주 중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하기로 했다.

1층-도르가, 2층-마리아, 3,4층-루디아, 5층-외벽, 6층-에스터, 7층-사라, 한나 여전도회가 담당기로 하였다.

제20회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

23일(화) 11시 웨스트민스터 홀

임관하여 복음 전파의 옥토인 군부대에서 군복음화에 앞장서게 될 군종목사 후보생의 수련회가 23일(화) 우리교회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3일간 계속되는 수련회 일정 중 23일(화) 일정을 담당케 되며 개회예배와 서울교회당 시설 견학과 영성훈련 그리고 찬양을 담당케 된다. 40여명의 군종목사 후보생들이 은혜받아 받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3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매월 셋째 주 찬양예배 시간에 성경통독을 한 성도들을 시상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3월 셋째 주일이 되는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3월 성경통독자를 시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에게는 교회로고가 새겨진 머그컵을 드린다.

3월 성경통독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경필사) 1회 - 이영자 권사(8교구)

(성경통독)

4독 - 함승현 권사(9교구)

3독 - 이윤영 권사(5교구)

2독 - 서경애 권사(1교구) 이용선 장로(2교구)

최금례 권사(2교구) 김인식 권사(8교구)

1독 - 국산옥 권사(1교구) 김광신 장로(12교구)

김정호 집사(12교구) 김은태 집사(13교구)

그레이스 핸드벨 대원 추가 모집

2부 예배 헌금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결혼과 유학 등으로 결원 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대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악보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모집 대상은 대학부, 청년부 성도이며 연습시간은 오전 10시부터 2부 예배 후 2시까지 504호이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만민에게 전도 - 제 4기 단기 선교지 방글라데시는?

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 칭한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벵갈어는 인도어가 아닌 방글라데시의 국어이다. 방글라데시의 언어는 타고르에게 노벨상을 쥐어줄 만큼 아름답지만 그들의 생활은 안타깝게도 정반대이다. 세계 4대 빈국 중의 하나인 방글라데시에서는 겨우 국민의 20%만이 식량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실업률이 50%에 달하는데다 인구의 5%가 90% 이상의 경제를 차지할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유달리 극심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발도 없이 사는 극도의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보게 되는 것이 구걸하는 손의 행렬이라고 할 정도다. 먹을 것이 없어 후진성 질병이 유행하고 유아사망률이 13.5%(한국 1%)나 되지만 보건수준이 턱없이 낮아 거의 민간요법에 의존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점은 방글라데시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무슬림 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방글라데시를 이슬람정부로 발표하고 타 종교 개종을 엄격히 금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중 기독교인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전세계에서 들어온 50여 개 단체가 사역활동 중이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에 벵갈어로 번역된 우르두어 성경 및 신약성경 <인질 샤틀프>가 배포되고 있으며,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있다.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 그들의 문화를 반영해 '예수' 영화도 보급, 상영하고 있다. 이들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수단으로 기독교의 개발, 구호사역에 접근하였다가 복음을 듣고 개종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저항적인 그들의 오랜 문화 때문에 선교사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민족주의와 모슬렘 복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고, 각 마을마다 파격 이슬람단체나 청년들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강력한 모슬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를 선지자나 좋은 선생으로 여기는 그들의 오페라도 선교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문자해독률이 24% 밖에 안 되는 높은 문맹률도 성경보급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한몫하고 있다. 그밖에 습 마할 정도로 텅텅 빈 고온다우의 기후 역시 선교인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악조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런 위험과 역경을 무릅쓰고 현재 많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구호, 원조, 개발사역 등을 통해 방글라데시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선교인들의 안전과 사역 승리를 위해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다.

고은실 (편집부)



박두영 장로 (1교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아무 것도 없는 자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사판에도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유의 낮고 천한 몸으로 탄생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고난의 시작으로 이 땅에 찾아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구원의 여명이 없는 자인 나를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시러 직접 육의 옷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영접합니다.

또한 대접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낮은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도리를 감당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영혼구원을 위하여 복음전과 사역을 감당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생명을 영벌에서 영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는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다짐하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흘리신 보혈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며 이 기간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기도의 모습을, 생명의 흔적을 보는 기회가 되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봄의 기운을 못 막는 겨울이듯이



김광신 장로 (당회서기, 12교구)

지금 우리나라는 지척을 분간 못하는 정치 상황이 찾아왔고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짙어졌고 분노하며 분열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내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 탓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더 문제이고 미성숙입니다. 그러면서도 애국자를 자처하고 순교까지 결심할 정도의 표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잘못을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믿는 자들 때문이고 교회가 죄야 하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일차적 책임입니다. 노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우리의 죄와 우리민족의 죄를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세우는 일에 미흡했고 오히려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수렁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소서.

탄핵정국이 변하여 선진 정치정국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공격하고 남 탓하는 대변인의 성명 대신 용서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국이 되게 하여 주소소서.

그리하여 농촌과 어촌과 광산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도시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옷을 벗고 가볍고 화사한 옷으로 갈아입는 봄의 문턱입니다. 하나님의 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봄의 정치가 오게 하시고 춥고 배고픈 겨울은 지워지게 하여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 오르가니스트 강민정 선생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1부 가족 예배 오르가니스트 강민정 선생은 올해 1월 첫 주 임명을 받고, 서울 교회에 등록했다. 서울 교회에 오게 된 강 선생은 마치 오래 다닌 교회처럼 정겹다고 한다. 이는 섬기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브리엘 찬양대의 젊고 유쾌한 분위기와 가족 예배의 친밀한 분위기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 같다.

가브리엘 찬양대 청년 대원들의 권유로 주중에 직장인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그녀는 첫 시간부터 은혜의 눈물을 흘렸단다. 시간이 없어 자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지만 매 주일 예배 후 하는 성경공부 또한 자신의 신앙을 분발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한다.

1972년 태생인 강민정 선생은 아직 미혼이지만 사회에서 어엿이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나사렛 대학 겸임교수, 한국종합예술학교, 연세대학교 출강)이다.

6세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그녀는 지금 어머니의 소망처럼 예배 반주를 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피아노 학원에 데리고 가며 "이 아이가 커서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단다. 그래서 그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이 늘 감격하고 감사한다. 그런 그녀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바호처럼 교회에서 교회음악을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바호를 존경한다. 이것은 바호가 바로크 시대에 큰 획을 그은 음악인일뿐더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Soli Deo Gloria) 교회음악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바호를 음악가 이전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매일 만나고 있다. 바호는 평생 매 주일 연주할 칸타타와 오르간 곡들을 작곡하는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나를 생각하며 그녀 역시 바호처럼 음악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모태 신앙인 강민정 선생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예배 반

주를 했지만 때 시간 조심스럽다고 한다. 오르가니스트의 실수가 예배에 치명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는 매 주일 예배를 위해 곡을 선정하고 찬송가 반주를 준비하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습에 충실하려고 한다. 강민정 선생은 사순절 절기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전주곡과 후주곡을 신중하게 선곡했다.

그녀는 가족 예배의 오르가니스트가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이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벼운 음악보다는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음악을 접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몫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오르가니스트가 되기 위하여 바호가 평생 마음 속에 새겼을 구절을 되뇌어 본다.

"Soli Deo Gloria!"

허숙(편집부)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기다리며

벌써 목회자 세미나가 25학기라니!



이영자 권사(8교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으랴" 그때의 찬송이 컷가에 정쟁합니다. 며칠 전부터 재료를 준비하시느라 시장 길을 오가시고, 옥상의 기온은 꽃샘 추위로 언

보다 더 환하게 피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밥과 컵라면에서 모락모락 나오는 뜨거운 사랑 속에 자라난 목회자 세미나는 이제 웅장한 교회당에서 강의를 들으시며 8층 만나 홀에서 사랑스럽게 대접할 수 있는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중의 축복입니다.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어 온 목회자 세미나 발전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며 그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많은 목사님들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한국교회의 당단이 변화되어 영적건능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음화 되어 이 나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등정

- 이종운 목사: 22일(월) 총회주최 한국선교 120주년 기념 대회에서 강연한다. 23일(화) 신임군중목사수련회 개회설교와 특강을 한다.
- 이사: 변만중, 박재숙집사(9교구) - 성동구 성수1가2동 715 중앙하이츠빌 102-2304호
- 주간 식당봉사: 마리아여전도회(3월21일) 에스더여전도회(3월28일)
- 금주의 식사: 하봉식 성도(주화인 집사) - 자녀결혼을 감사하며 서경숙 집사(이승우 집사) - 모친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교회 목회자 신학세미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같이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정치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맞은 이때에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하여 먼저 목회자들이 깨우는 '제25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라는 주제로 3월29일(월) 오후 2시 개강됩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가 나가고 준비위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며 벌써 25학기라니! 하시며 12년 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작발한 목사님의 머리가 겨우 자라나고 교회에는 의자도 없이 맨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부엌조차도 없는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의 간식을 만드시느라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권사님들의 주름진 손으로 정성드려 김밥을 말며

제나 영하권이었고, 그 휘어진 허리에 매어진 김밥의 노하우는 사랑과 기쁨으로 갖가지 속을 준비하여 감사하는 손맛으로 꼭꼭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밥은 간이 딱 맞는 정말 꿀맛 같은 김밥이었습니다.

세미나 장소는 강남 YMCA 강당을 빌려 사용했고 월요일마다 이삿짐 차로 600명분의 김밥박스와 물통, 컵라면, 빵, 설교테이프와 목사님 저서 등등이 실려 이동되고 세미나 끝나면 의자와 모든 기물이 제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그 마무리 작업의 수고가 힘에 겨워 발이 부르터 집에와 찬물에 발을 담그던 집사님들의 수고와 열정이 눈물겨웠습니다.

학기가 열릴 때마다 온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다하고 학기가 끝날 때는 온 교회의 축제로 오신 목사님들의 식사를 대접하는 서울교회의 발걸음은 아름답기만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는 권사님들, 그 추위에 김밥을 마시던 수고와 땀이 천국에서도 25학기를 바라보시며 꿀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서울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5.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